2021년 4월 11일 (사순) 부활 제 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제 41권 20호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www.103kcc.org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kcc.org email : 103kccusa@gmail.com

< 미사 및 성사안내 >

<주일 미사>

토요 저녁	오후 7:00
주일	오전 7:30
(영어) 격주	오전 9:30
	오전 11:00

평일 미사

화,수,목,금	오전 9:30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30
고해성사	미사 전후

병자성사 긴급연락

(310) 218-8432 (신부님)
(310) 218-8282 (수녀님)

혼인성사 6개월 전 신청
유아세례 1개월 전 신청
병자성사 월,목,토,일 수요일

— 본당 안락처

사무실 (월, 화 휴무)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주임신부 : 윤승식 모세

Ext 106

전교수녀 : 박요아 프란시스
Ext 102

종신신부 : 최영선 프란치스코
☎ (213) 637-9000

평협회장 : 현석주 아오스딩
☎ (310) 594-9472

연합회 : ☎ (310) 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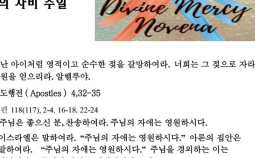
빈첸시오회 : ☎ (323) 833-6436

— 사무실 업무시간안내

주 일 : 8:00 ~ 5:00
월, 화 : 휴 무
수요일 : 9:30~12:30, 1:30~7:30
목요일 : 9:00~12:30, 1:30~7:00
금요일 : 9:00~13:00 일음
토요일 : 9:30~12:30, 1:30~7:00

< 사무실 방문 시 사전 연락 요망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오늘의 전례

입 당 송	갓난 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아.
제 1독서	사도행전 (Apostles) 4,32-35
화 답 송	시편 118(117), 2-4. 16-18. 22-24 ℣ 주님은 좋으신 분, 한없이 자애롭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엄을 아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기며 하세. ℣
제 2독서	요한 1서 (John) 5,1-6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요한 (John) 20, 19-31

사도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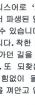
신앙의 신비어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깊이 영광받으소서.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옆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아.

복음묵상



진다나 환은이 축을 정벌하려고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양쪽 강의 섬들이 있는 것을 지났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환 배 병사가 새벽 어둠이 한 마리를 잡아 올리는, 그 어미 원숭이가 환은이 한 배를 올어 싸여 리를 슬피 울며 뛰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강기슭에 대자 어미 원숭이가 물을 날려 배 위로 뛰어올라와 오른자와자 죽고 말았답니다. 병사들이 하도 이상하여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창자가 끊어질 만큼 자식을 잃은 슬픔이 컸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자비'는 '크게 사랑하는 가엾게 여김'으로, 성경에서는 '가엾이 여기다'로 자주 표현됩니다. '가엾이 여기다'는 그리스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 오장육부, 곧 창자 등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애끓는 마음', '단장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자비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살피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입니다. (루가 10,33 참조). 도 모든 인들의 이야기에서,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굶어 죽게 되어 히값이 돌아오는 작은아들을 멀리서 발견하고는 한숨에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루카 15,20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최서 '자비의 얼굴',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 당신의 온 인격으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 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 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 줍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를 입었으므로,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주님께서는 항상보다도 실천하지 말고, 단호하지 말고 ..... 용서하고 자신을 내어 주라고 요청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7).

- 서현 바오로 신부-

전례봉사자

이번주	토요미사	아침미사	낮미사	다음주	토요미사	아침미사	낮미사
해설자	조병준 클레르보	정윤주 베네딕도	남정철 베네딕도	해설자	유지호 클라라	송민선 안젤라	정민욱 아오스딩
독서	김 명 스텔라	인영 요 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독서	김경자 데레사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예수님께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양손과 두 손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 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본당 소식

- 4월 13일 (화) ~ 16일 (금)까지 주임 신부님 휴가입니다. 휴가 기간 본당사무소는 없습니다.
- 부활 대축일부터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성경필사를 시작합니다. 구역장, 반장님께서는 봉투 받으셔서 들어있는 종이 봉펜으로 각 가정에서 성경을 필사하시어 성당에 봉투째 내어 주시면 됩니다.
- **사제서품을 위한 영적 예물**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부제의 사제서품을 위한 영적예물은 4월 18일까지 봉헌해주세요.
-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묵주기도 봉헌**
  봉헌 합계표에 바친 묵주기도 단수 만큼 적어서 봉헌과 함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 **애긍봉투 및 성금요일 봉헌**
  성목요일 애긍봉투 (Together in Mission)와 성금요일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을 못 내신 분은 사무실에 마련된 봉투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상의 어머니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일시: 4월 11일 주일, 오후 12시30분
  대상: 레지오 단원, 협조 단원 (준비물: 묵주)

2021년 교무금, 성전헌금 책정바랍니다.

교무금, 성전헌금 자동이체 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미사지향

평일 및 토요 미사	(6) 구순요, 김기정 파스칼, 김남예, 김정재 안젤라, 김소화 데레사, 박광재 알폰, 이근모 마리노, 이윤식 베드로, 이인순, 조광일, 정재우 요한
아침미사	(4) 김재훈 대건 안드레아, 김무성 요셉 & 김희재 벨데타 가정, 김원진 요 아키린 라자로 가정, 민지중 토마스, 마혜, 민영주 마르고, 변지나 마리아, 이상파 요안나, 이종민 요셉, 이종민 베드로 & 이진다 마르다 가정
주일 낮 미사	**백삼위 성당 교우들 위한 교우 미사** (15) 교공희 세실리스, 김남재, 나기웅 라우렌시오, 나남경 안드레아, 노동우 프란체스코, 문복순 벨라네, 박광웅 요셉, 박종대 알구만 박주연 마리아, 박필례 세실리, 박종웅 요셉, 배기범 클레멘스, 손 석 스테파노, 송광웅 카타리나, 송동규 요셉, 송자선 안나 진해동 요셉, 조규원 필리입, 이근모 마리노, 이미연 마리아, 이인재 알프로시오, 차병용 클레멘스, 최병영 스테파노.
	(8) 강재은, 공로리아 성가대원, 김소희 수산나 & 다니엘 마리네, 김정길 안드레아, 김지웅 대건 안드레아, 민지은 토마스 마혜, 민영준 마르고, 염혜, 나나, 민아, 박순주 스테파노, 성소주례회 회원, 손희정 라우렌시오 & 손임복 스테파노 안나의 회원, 연보주 요셉라우, 요셉회 회원, 이병재 라드미다, 정정수 클라라, 정재다 세라피나, 정혜숙, 조나, 아이라, 노라 정원라 클레, 필립, 조나나 정의 정셀리스 클라라, 정원순 사라, 조상현 요 조경재 레드리아 가정, 토넷스 복구역 제스카 김 & 김민규 가정, 최기당 마르코 & 최옥희 데레사 가정

교우 업소록

주로 광고만은 본당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광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 310-530-3010
3400 W. LOMITA BLD.TORRANCE, CA 90505
김종섭 마린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김교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오 미카엘(명섭) 치과
☎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SR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

상업용 부동산
상가, 아파트, 창고, 리스 및 매매 전문적 관리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리모델링, sale&lease 컨설팅
마이클 송 310-940-265 / BR#0177935

택시 TAXI
☎ 310-350-9540
신 마르티노

수호천사보험
장래플랜 / 장례보험 / 골퍼포지션레
시니어 종신보험(수명정산보험) / 건강보험
/어린이건강보험 전화 : (310) 908-8823
CA Ins. Lic.#0G57882 Jay Lee 안셀모

수지 박 부동산
☎ 310-897-0444
DRE # 01203910 / BERKSHIRE HATHAWAY
모든 경험으로 부동산과 동거하기 관한 모든 것 도와드림

크리스 리 부동산
☎ 310-619-7763 아가토
DRE # 01479968
New Star Realty

후코이단 네이처메디
1991 W 190th St. STE 101 Torrance, CA 90504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합그레드
☎ 1-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베니스 안경원
☎ 310-539-2449
23215 Hawthorne Blvd. #E Torrance, CA

테니스 레슨
테니스는 열정입니다!
Coach 박 도미니코
☎ 310-997-7770

수지 Choi 부동산
☎ 310-408-0083
RE/MAX ESTATE PROPERTIES
DRE #:01892682, 김낸 영희

모든 집수리 전문
장판, 니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설치
김한구 요한
☎ 310-701-6343

현대해운
윤성진 안드레아
☎ 310-763-0001

GRAND OPENIING
귀빈 이발관
남녀 여러 것 및 염색 전문
예약전화: 310-634-3333 / 310-702-7676
16229 S.Western Ave. #3
Gardena, CA90247

주택융자 박경주 요아킴
재융자 ☎ 818-522-2933
NMLS #1762201

교무금 내신분

권요상	권태연	김상길	김원모
김여순	김옥순	김원모	김정숙
김종열	김종섭	김현숙	박숙희
반비오	서은희	손두화	안인수
오상남	유선식	이인상	이상석
주태종	지경수	최영선	한인조

성전헌금 내신분

권요상	권태연	김상길	김원모
김종열	김종섭	김현숙	박숙희
반비오	손두화	안인수	유선식
이인상	주태종	지경수	최영선

하느님의 자비주일

가톨릭 교회는 2001년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2000년,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면서 하느님 자비를 특히 기릴 것을 당부하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제정했다.

1905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M · 파우스트 수녀는 그리스도의 환시를 체험한 뒤 내적으로 깊은 일치를 이루며, 서른 세살에 선종할 때까지 하느님 자비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는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를 생생하게 보여 줄 책임이 있다. 교회의 신뢰도는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한 사랑에 달려있고, 자비의 증거를 보여줄 위해 무엇보다 말씀을 육성하여 자비를 발견하고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비의 육체적 활동: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것

자비의 영적 활동: 상처 받은 이들 위로하고,
모욕한 자를 용서하며
괴롭히는 이들 인내로 견디는 것